

“믿을 건 마스크 뿐” 광주버스터미널 이용객 방역 ‘양호’

전국적 확산세에 주말 이용객 큰 폭 감소 대부분 마스크 착용...카페·식당가는 미흡

“개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역은 마스크 뿐이잖아요”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영향 때문인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대합실 내 인적은 평소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특히 광주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전남 ‘사회적 거리두기’를 또다시 2단계로 격상하면서 긴장감마저 흘렀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는 모양새였다.

한 시민은 일행과 대화를 하며 쓰고 있던 마스크 위로 손을 가리기도 했다.

터미널 내 곳곳에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버스 탑승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 방송이 수시로 흘러 나왔다. 방송을 듣고 턱에 걸치고 있던 마스크를 코까지 올리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한 아이는 답답한 듯 마스크를 벗으려다, 어머니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터미널 내 카페·식당 등에선 창가에 마련된 일렬 좌석으로 손님이 몰렸다. 일부 손님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잠시 벗기도 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민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한 대학생은 “마스크를 집에 놓고 나왔다”며 부랴부랴 인근 약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행 고속버스가 도착하는 하

차장에는 열 화상 카메라가 2대 설치돼 광주를 찾은 이들의 체온을 꼼꼼하게 측정했다.

이상 체온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인근 임시 격리 공간으로 옮겨진 뒤 정밀 체온 측정을 거쳐 선별진료소 이송 여부 등이 가려진다.

터미널을 찾은 이용객들은 최근 일파만파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세에 우려를 표했다.

김애숙(57·여)씨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서울 정도다.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싶었지만 수해 피해를 입은 고향 구례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마스크라도 항상 착용해야 마음이 놓인다. 방역당국의 조치대로 잘 따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북 남원에서 여행 온 김현우(17)군은 “당초 4박5일 계획으로 여행을 왔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2박3일로 일정을 줄여 집에 가는 길이다”며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더 이상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재격상된 가운데 23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찾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한 입점 상인은 “확연히 여름휴가철 터미널 방문객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세로 주변 상권도 활기를 잃은지 오래다”며 한숨을 쉬었다.
승차권 구매 창구도 모든 발권

업무가 무인화돼 접촉이 최소화됐다.
무인 발매기 앞에선 시민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서서 승차권을 구입했다.
터미널 직원들은 무인 발매기

이용이 익숙치 않은 시민들을 도왔다. 이들은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장갑을 착용한 채 터치스크린용 펜을 이용해 발권 업무를 도왔다.
신봉우 기자



한산한 서울시내 쇼핑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된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 쇼핑몰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폐쇄 연장...행사 줄줄이 연기·취소

코로나19 확진 직원 동료 47명 중 29명 음성

대형 국제행사 등을 치를 수 있는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가 직원 1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폐쇄돼 예정됐던 전시들이 줄줄이 취소 또는 연기되고 있다.

또 현재 추가 확진자는 없지만 일부 직원들이 2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으며 광주지역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돼 재운영

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에 따르면 직원 1명(광주261번)이 지난 21일 확진판정을 받아 이날까지 시설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방역을 진행했다.

또 광주261번과 밀접촉한 같은 부서의 직원 7명 등 전 직원 42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날 오전 10시 현재 29명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당분간 시설 운영 재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운영 중단은 이날 자정까지로 계획됐지만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밀접촉 직원 대부분이 자가격리 중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직원 7명은 밀접촉자로 파악돼 다음달 2일까지 자가격리가 유지된다.
최이슬 기자

순천 ‘코로나19’ 40대 女확진...헬스클럽 등 380명 접촉

마스크 미착용 다수 포착...CCTV확인 등 정밀 조사

전남 순천시에서 23일 1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남 75번 확진자다.
순천시에 따르면 확진자 A씨는 덕월동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으로 순천 5번 확진자와 저녁 식사 장소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순천 11번 확진자와 같은 아파트에 같은 층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8일 이마트에서 순천 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정확한

감염경로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진단검사 의뢰 후 자가격리에 들어갔으며 22일 오후 10시 최종 확진 통보를 받았다. 순천시는 A씨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해 입원시키고, A씨가 다녀간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을 완료했다.
A씨는 지인과 헬스클럽 방문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광범위한 역학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암취터뉴스앤스파를 매일 반

복적으로 방문해 헬스장, 사우나 등을 이용했으며 주로 오전동과 탁월동에 위치한 식당과 카페, 마트 등을 방문했다.
순천시는 A씨가 소규모 모임이 잦아 동거가족을 제외한 밀접촉자는 30여명, 헬스클럽 회원 등 접촉자는 모두 380여명이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A씨가 헬스클럽과 사우나 이용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헬스클럽 회원 342명의 명단과 CCTV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정선용 기자

전남대 교직원 확진...대학본부 폐쇄

전남대학교 교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본부가 폐쇄됐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남대 교직원 1명이 전남 코로나19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대학본부 소속 부서에서 근무해 왔으며, 대학본부 측은 22일부터 대학본부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또 본부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근로학생, 18일부터 21일 사이 본부를 방문한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직원의 확진 판정이나 확진자의 방문 등으로 대학병원과 의료기관, 초등학교 등이 임시 폐쇄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직원 확진으로 대학본부가 폐쇄되기는 매우 이례적이다.
해당 직원은 확진 판정이 나기

전까지 이렇다할 증상이 없어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 직원의 동선을 따라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 중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근무지와 주요 동선을 따라 밀접접촉자와 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1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며 “나머지 접촉자와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에서 선별 검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선욱 기자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